

원희룡 장관 “일하지 않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교체 요구할 것” - 2일 오전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영상황 점검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(목) 오전 10시 30분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타워크레인 운영상황을 점검하고, 현장 관계자*들과 간담회를 가졌다.

* LH 본부장,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, 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,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

□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근로여건, 안전수칙 준수 등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 업계 및 조종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,

○ 참석자들과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교체가 필요할 경우 대체 조종사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
□ 원 장관은 이 날 간담회에서 “타워크레인은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필수 기계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”라며,

○ “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태업의 행태로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

□ 아울러, 원 장관은 “건설산업 구성원임에도 다른 구성원에게 야기되는 피해는 외면하는 일부 노조의 몫니, 부적절한 관행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근절시킬 것”이라고 강조하며,

○ “일 하고 싶은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에 오를 수 있도록 조종사 인력풀을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이뤄낼 것”이라고 전했다.

2023. 3. 2.

국토교통부 대변인